

‘무주산골영화제’ 성황리 폐막

31개국 110편 영화 상영... 공연·전시 등 다양한 이벤트 펼쳐져

아름다운 전라북도 무주에서 펼쳐진 초여름의 낭만 영화제,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 (2022. 6.2.~6.6.)가 5일간의 영화 소풍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올해로 10회를 맞은 무주산골영화제에서는 31개국 110편의 영화들이 5개 실내상영관, 3개 야외상영관에서 상영되었고 콘서트, 전시, 책방, 공방 등의 이벤트 프로그램도 영화제 행사장 곳곳에서 다양하게 펼쳐졌다. 공연 14회, 야외토크 4회를 비롯하여 관객와의 대화 23회, 토크 시네마 9회, 상영전 무대인사 8회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10주년을 맞이해 새롭게 준비한 '토끼 시네마' '10주년 특별 다큐멘터리 (무주)' '10주년 기념 이야기비전 전시'가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무주등나무운동장과 실내상영관을 유료로 전환, 티켓 예약 시스템 도입을 본격화함으로써 관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무주산골영화제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했다. 물론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실내의 마스크 착용, 관객 안전 키트 제공, 전문 방역 업체를 통한 상시 관리 등 기본 안전 수칙들도 놓치지 않았다. 올해 처음으로 유료화를 본격화한 무주산골영화제는 총 5일간 유료관객 13,158명이라는 관객 수를 기록했으며, 개막식과 덕유산국립공원 대립회장, 키즈스테이지, 전시 등 무료 상영 및 프로그램 참여 관객을 포함하면 약 3만여 명의 관객이 무주산골영화제를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어 현재 국내에서 가장 뜨거운 영화제임을 확실히 입증했다.

올해 무주산골영화제 한국전통문화재단 '창' 색션에는 총 10편의 영화들이 상영되었으며, 총 5개 부분의 시상식이 이뤄졌다. 먼저 황인홍 조직위원장은 "지난 10년간 한결 같은 마음으로 무주산골영화제를 찾아주고 응원해 준 모든 분들이 주역이다"라는 감사 인사와 함께 6월 14일부터 무주군민을 위해 진행되는 무주산골마을극장을 비롯 무주산골영화제가 가진 영향력에 대한 소감과 포부를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유기하 집행위원장이 "코로나19 이후 무주에서의 첫 대규모 상영과 공연을 진행, 무엇보다 첫 유료화를 시도하여 5일간 평균 실내 좌석 점유율 52.84%, 주말 좌석 점유율 70%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뜨거운 현장 열기를 전했다.

심사위원 및 시상자와 관객들이 모인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 시상식에서, 새로운 시선과 도전적인 방식으로 영화적 비전을 보여준 뉴비전상(대상)은 김세인 감독의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가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심사위원 대표로 자리한 김종관



아름다운 전라북도 무주에서 펼쳐진 초여름의 낭만 영화제,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 (2022. 6.2.~6.6.)가 5일간의 영화 소풍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사진은 시상식 수상자 단체 사진)

감독은 "문제가되면서 흥미로운 여성 캐릭터를 보유한 영화로, 기존의 대중 매체가 선보여 왔던 모성의 자장에서 완전히 벗어난 인물상을 치열하고 집요하게 탐구한 김세인 감독의 독심과 저력이 그의 다음 작품을 기대하게 한다"고 심사평을 전했다. 이에 수상자 김세인 감독은 감사 인사와 함께 "이번 무주산골영화제에서 영화는 완성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계속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특히 여기서 많은 분들과 나눈 대화들은 연젠가 제 영화 속 일부가 될 것이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비밀의 언덕>은 감독상인 나봄상과 무주 관객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이지는 감독은 감격의 눈물과 함께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작업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이렇게 나를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신 배우, 스태프들에게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크리에이티브상은 다큐멘터리 <모어>의 주인공인 아티스트 모지민에게 돌아갔다. 김종관 감독은 "올해 경쟁부문의 상영작들은 한 명을 선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채로운 배우들이 눈에 띄었다. 고심 끝에 다큐멘터리 <모어>의 주인공 모지민님을 선정했는데, 그의 삶과 예술적 행보가 심사위원 모두에게 깊은 감흥을 주었다"라며 "존

재의 아름다움을 일깨워 준 모지민 배우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라고 전했다. 수상한 모지민은 "이 다큐멘터리에 출연을 결정하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 꼬박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상을 받을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깊은 감사와 더불어 이상을 잊지 못할 것 같다"라고 박찬 소감을 전하며, 시상식 현장에서 춤 퍼포먼스를 통해 기쁜 소감을 표현해 뜨거운 환호의 박수가 쏟아졌다.

영화평론가상에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의 박송열 감독이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심사위원 대표로 무대에 오른 오진우 평론가는 "어떤 제작 지원도 받지 않은 보기 드문 작품이었다. 경제적 위기를 넘어서려는 영화 속 부부의 이야기가 실제 제작 현장과 공명 하면서 영화에 독특한 리듬과 창의적인 형식을 부여했다"라는 심사평을 전했다. 수상자 박송열 감독은 "이번 수상이 큰 격려이자 에너지가 되었고 다음 작품도 충실히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총 5일간 31개국 110편의 영화들과 다채로운 토크, 공연 이벤트로 명실상부 국내 대표 낭만 영화제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동시에, 철저한 방역 관리를 통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보여주며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영화제'로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루어냈다.

/무주=전문선기자

고전 문학 여행으로 완판본 가치 알린다

대장경문화학교 '이야기 새기는 고전 책방' 신나는 예술여행 문학부문 선정 완판본 '열녀춘향수절가' 총 12회 전국 학교 밖 청소년 문화시설 찾아가 진행

대장경문화학교의 '이야기 새기는 고전 책방'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2 신나는 예술여행의 문학부문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신나는 예술여행'은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해 예술 향유기회가 부족한 시설을 직접 찾아가 전문 문화예술단체의 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완판본문화관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이야기 새기는 고전 책방'은 5월부터 11월 까지 총 12회에 걸쳐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 문화시설로 특별한 고전 문학 여행을 떠난다.

이에 따르면 각 지역의 문화시설을 찾아가 완판본 '열녀춘향수절가' 압행어사 출두 대목을 중심으로 고전 책방의 문을 활짝 연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전 책방'이라는 공간에서 우리의 고전을 함께 읽고, 듣고, 새기고, 낭독하고, 만들어보는 체험 방식의 문학 예술여행

이다. 특히 조선시대 고전 소설을 읽어주던 직업 이야기꾼 전기수와 소리꾼의 판소리 공연, 목판에 글자를 새기는 각수(刻手)의 판각시연을 통해 고전 문학의 가치를 전하는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다. 또한 한글 고전 소설을 소장할 수 있는 고전 책방 원데이 클래스와 고전 문장을 낭독하며 고전 문학의 가치를 엿보는 시간을 함께한다.

이번 사업의 총괄 기획을 맡은 완판본문화관 안은주 학예실장은 "각수, 연극배우, 소리꾼, 고수, 사진작가 등 전북 지역의 젊은 문화예술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완판본을 만날 수 있는 '이야기 새기는 고전 책방'을 기획했다"면서 "함께 참여하고 호흡하며 전북의 기록문화유산인 완판본의 가치와 의미를 알릴 수 있는 신나는 예술여행, 고전 문학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시루방' 한식 체험객 급증

올해 5월까지 1400여명 다녀가... 지난해 동기 대비 221% 증가

한국전통문화전당 '시루방'이 한국의 맛과 멋을 즐기려는 체험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7일 전당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5월까지 음식조리 체험시설인 '시루방'에서 체험에 나선 방문객이 총 1400여 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30여 명에 비해 무려 221%가 증가한 수치다.

실제 코로나19로 외국인 체험객이 전무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5월 한 달에만 무려 135명이 다녀갔다.

뿐만 아니라 오는 11월까지 54건, 2682명이 음식체험을 예약했다.

체험객들은 초등학생, 청소년, 성인, 외국인들로 다양하며, 재방문 비율이 50%를 넘길 정도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는 그간 전당에서 외국인 체험객 유치에 위해 각 기관에 공문 발송, 다양한 강좌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대외적 홍보를 펼쳐 온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전당 시루방은 체험객 186명을 동시에 수용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의 조리체험시설로 전주비빔밥을 비롯해 한국 대표음식을 직접 만들어 맛볼 수 있는 다채로운 조리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김선태 원장은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체험객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맛의 고장 전주를 알리는 등 음식체험 메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성기자·장은성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